오늘의 게시판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행사 〈22일〉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늘 푸른 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이여일 교수가 폐경전후의 변화, 갱년기의 주요 증상등을 소개.

▲조선대 문화법 정책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오전 11시30분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 이영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최정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이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연구쟁점과 과제', 이종열 인천대 교수가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등에 대해 주제 발표.

▲아시아 문화동반자 심포지엄=오후 2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 '아시아문화동반자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노명우 아주대교수·Ms. Joan P.Serrano 필리핀 변호사가 주제 발표.

▲제 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오후 6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한·중·일·태국·필리핀·베트남·홍콩·대만 등 아시아권 9개국 12개팀이 참여.

▲제 7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오전 10시 한국가사문학관. 최재남(경남대)·김학성(성균관대)·김성기(조선대)·최한선(남도대)·박준규(전남대)·신영명(상지대) 교수 등이 면앙정 송순의 연구와 전망·시조·가사·한시·분재기 고찰·사상 등에 대해 주제 발표.

▲2006 무안분청 문화재 개막식=오후 6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분청국악대향연·무안분청작은음악회·어린이 무안 분청 성형대회·타악퍼포먼스·무안분청 경매 등 행사. 24일까지.

▲제 125회 강진 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역의 미래-문화를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강연.

▲제 504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김경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가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강연.

〈23일〉

▲광주 외국인의 날 행사=오후 2시30분 조선대 1·8 노천극장. 내·외국인 등 800명 참석 예정. 24일까지.

▲빛고을 그린투어=오전 10시부터 북구 본촌동 금곡 마을. 15가구 40명이 참여해 우리밀 빵 만들기, 무등산 수박 시식 등 체험.

▲제 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오전 11시30분 고흥군 팔영체육관 등 2개소. 800여명 참석 예정. 24일까지.

▲장흥군민 문화예술 창작 축제=오후 2시 장흥군 장흥읍 탐진천변. 천연염색·바람 기둥에 담은 사연·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 등.

▲제 3회 담양군 생활체육 한마당대회=오전 9시 담양군 추성경기장 등 4개소. 게이트볼·배구·태권도·테니스·족구 등 900여명이 참여.

공연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신창극 '성춘향'=22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연극 '다시라기'=23~24일 오후 4시,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26회 대한민국 국악제=23일(토) 오후 6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판소리·남도민요·가야금 병창·도살풀이·아쟁 산조·진도북춤·소포 베틀노래 등 공연. 24일까지.

▲담양 죽산매구굿 시연회=23일(토) 오후 2시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2구 마을회관 앞. 문굿·마당밟이굿·조왕굿 등 시연.

전시

▲5·18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재)5·18기념재단.

▲김영순 특별전=31일까지 동림우체국.

뉴스퀴즈

30.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 FC로 이적한 이 선수가 5경기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트렸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밤 영국 셰필드 브래몰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5차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오른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1-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25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 '스나이퍼'라는 별명이 붙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설기현 ② 이천수 ③ 김남일 ④ 정조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강아지를 풍선에 매달아?

영화 '미인'과 드라마 '순자'(SBS) 등에 출연한 배우 겸 탤런트 **이지현**(28)씨의 납치 소식이 인터넷을 달궜다.

이씨는 지난 11일 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노상 주차장에 세워둔 아우디 승용차를 타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에게 납치, 2시간 가량 끌려 다니다 납치범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를 세우자 탈출했다.

미국 여자 포켓볼 무대 정상을 지키고 있는 한국계 **자넷 리**(35)도 화제의 인물에 올랐다. 자넷 리는 미국 여자포켓볼대회를 휩쓴 인물. 특히 자넷 리가 지난 13일 '트릭샷 매직 챌린지'등에서 선보인 화려한 플레이는 포털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올려져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트릭샷은 '묘기 당구'로 상대 선수가 낸 예술구 과제를 성공시키면 득점하는 방식. 끌어치기, 찍어치기, 띄우기 등 최고의 기술이 총동원된다.

볼을 보는 날카로운 눈매가 특히 매력적이며 게임때마다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다, 검은 장갑에 독거미가 새겨져 있어 '검은 독거미'라는 애칭이 붙었다.

허영만의 원작,'범죄의 재구성'의 최동훈 감독, 조승우·백윤식·김혜수 등 많은 요소들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아온 영화 **'타짜'**(제작 싸이더스FNH)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특히 배우 김혜수(36)가 영화에서 상반신 누드, 뒷모습의 전라 누드, 팬티 노출까지 불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스터 등을 다운받으려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타짜는 오는 28일 개봉한다.

'개풍녀'도 화제의 검색어에 포함됐다. 개풍녀는 젊은 여성이 풍선에 강아지를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내는 동영상 내용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지난 12일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올려진 뒤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퍼 날라지면서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 한다" 며 신고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동영상을 연출, 올렸던 모 연예기획사측은 "사실 강아지를 날려 보내지 않았으며 다시는 이런 연출을 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 MBC 월화드라마 주몽의 예씨부인역에 낙점된 **송지효**, 노현정 아나운서에 이어 KBS 상상플러스의 진행을 맡은 **백승주** 아나운서, 최근 SBS 스페셜이 방송을 통해 고발한 환경호르몬이 남녀의 성호르몬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내용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1위	이지현납치	6위	윤손하
2위	자넷리	7위	송지효
3위	태풍산산	8위	유해환경호르몬
4위	개풍녀	9위	백승주
5위	타짜	10위	특수수사일지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타짜'에서 정마담역을 맡아 섹시미를 선보인 김혜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음 8월 1일 甲寅)

子 36년생 주변사람 간에 小事 分爭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가 나타날 수 있다. 48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온다. 60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72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84년생 시기상조다. 행운의 숫자 : 01, 31

丑 37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49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61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73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기분. 8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得財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43

寅 38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0년생 부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62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4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26

卯 39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1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3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7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6, 35

辰 40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76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행운의 숫자 : 02, 32

巳 41년생 適時에 마무리 작업으로 모든 외형을 줄이고 실리 있는 편으로 집중하라. 53년생 횡재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5년 生氣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77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3, 44

午 42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2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4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6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8년생 신중하게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0, 28

未 43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5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67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79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치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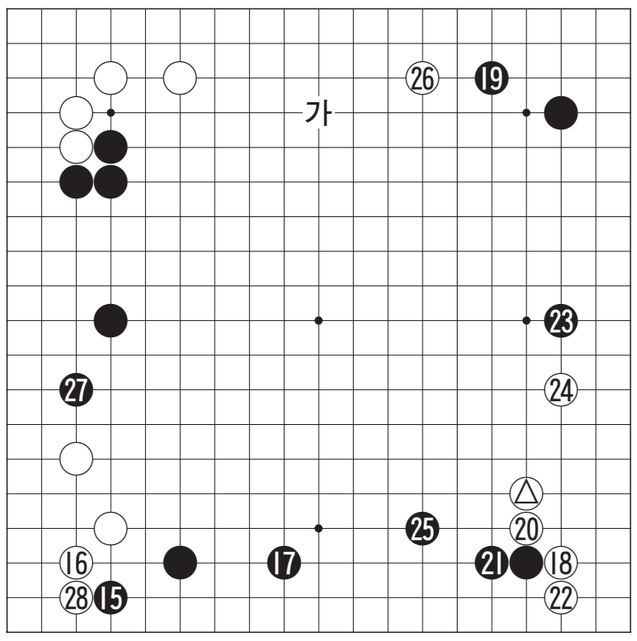
申 44년생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56년생 모든 외형을 실리위주로 바꿔라. 68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13, 40

酉 45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7년생 불편한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81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2

戌 46년생 큰 고통은 없다. 58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2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0, 16

亥 4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치 말고 실리를 점검하라. 71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83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으나 후일을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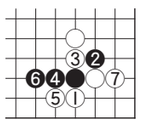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발빠른 취향 4회전 2보(15~28)

白 이강민 5단 〈PCA생명〉 黑 박정규 5단 〈KT A〉



〈참고도〉

박정규 5단은 본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관록의 강호이며 이강민 5단은 새얼굴이기는 하나 전남대 바둑동아리인 '오로회'에서 갈고닦은 실력으로 첫 출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백 △의 걸침을 외면하고 흑 15부터 17로 하변을 정리한 것은 박 5단의 취향이다. 포석은 대개 어느 곳을 두더라도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기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백 18은 당연한데 이때 박 5단은 또 손을 빼서 19로 우상귀를 굳혀 간다. 이 판은 발빠르게 두기로 작정한 것처럼 두고 있다.

백 20은 '참고도'의 1로 아래에서 젖히는 정석도 많아 볼 수 있다. 그러면 백 7까지가 정석인데 이후에는 주위의 배석에 따라 착점이 달라질 수 있다.

백 26은 박력있는 다가섬이나 '가' 정도가 무난했으며 다음 흑의 한 수가 궁금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장주주, 맥심커피배 16강

장주주 9단(한국기원 객원기사)이 2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장수영 9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지난 2002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장주주 9단은 백성호 9단과 8강 진출을 다툰다. 부부 기사인 장주주 9단과 루이나이웨이 9단이 나란히 이 대회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부부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32강 대국 가운데 서봉수 9단과 박정상 9단의 대국은 32강전 최고의 빅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39>

Do you have smaller bills?

소액지폐 있으세요?

A:Is this cash or check?
B:Cash, please.
A:**Do you have smaller bills?**
B:This is all I have.
A:Well, then, we have a problem. We don't have changes for you.

A:이것, 현금으로 아니면 수표로 지불하실 건가요?
B:현금으로요.
A:**소액지폐 있으세요?**
B: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데요.
A:음, 그러면... 곤란하게 됐네요. 저희는 손님에게 드릴 잔돈이 없는데요.

small bills [notes] : 소액지폐
- a ten-dollar bill : 10달러 지폐
- 잔돈 = small change : small money
: loose money : loose cash
keep the change (잔돈 가지세요.)
This is all I have. '디시졸라이 해브'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39>

今忙(いそが)しいですか?

지금 바쁩니까?

A:ちょっと、田中さん、**今忙(いそが)しいですか?**
B:ええ、とても忙(いそが)しいですよ。
A:たいへん申(もう)し譯(わけ)ないんだけど、この計畫書(けいかくしょ)、準備(じゅんび)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どうしたらいいかな…
B:そんなふうに遠回(とおまわ)しに言わないで、明日(あした)までに準備(じゅんび)してくださいって、單刀直入(たんとうちょくにゅう)にいってください。

A:잠깐 다나까, **지금 바쁩니까?**
B:예, 몹시 바쁩니다.
A: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계획서 내일까지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돼. 어떻게 하면 될까나…
B:그런식으로 돌려서 말하지 말고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라고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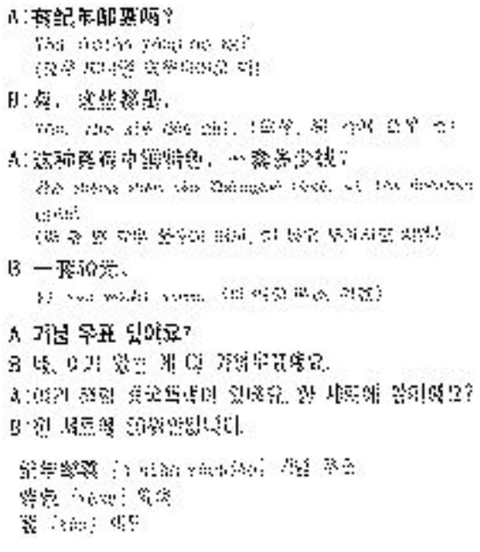
どうしたら : 어떻게하면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하지 않으면 안된다
そんなふうに : 그런식으로, 그와같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57>

有紀年郵票嗎?

기념우표 있어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57>

朝 鮮 (조 선)

아침 조, 신선할 선

조(朝)는 풀(草)+해(日)+물(水)로, 풀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바닷물이 밀려오는 때를 나타낸다. 선(鮮)은 물고기(魚)와 양(羊)으로, 생고기를 의미한다.

조선(朝鮮)은 단군(檀君) 왕검(王儉)이 세운 나라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은 천왕(天王)과 곰 출신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요(堯)임금이 즉위한지 50년 되는 해(서기전 2333년)에 평양성에 도읍(都邑)하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하였다. 다시 도읍을 아사달로 옮겨 나라를 다스린지 1500년 만에 나라를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조선 왕으로 봉함 받은 기자(箕子)에게 내주고 자신은 산신(山神)이 되어 1908세 까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조선(古朝鮮)'이라는 호칭은 정식 나라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뒷날의 기자조선(箕子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이씨조선, 조선인민공화국(북한)과 구별하기 위해 고조선 또는 단군조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나 '후한서(後漢書)'에서는 단지 '조선'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이란 '아침이 신선하다', 또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조선을 우리말 '아사달'의 음역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